

# RID

## Take Inspiration from Everywhere and Everything

# Kelly Reynolds

취재 원선영



Kelly Reynolds Interiors의 대표 Kelly Reynolds는 디자이너로서 보기 드문 이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학창시절의 규칙적인 생활패턴에 싫증을 느끼며, 좀 더 재미있는 세상을 경험해보기를 원했다. 이에 그는 대학 졸업 후 군대를 지원하였고, 그 곳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학생 때 경험해보지 못한 다양한 일들을 겪게 된다. 또한 제대 후 3년간의 여행은 그 나이 또래들보다 더 넓고 통찰력있는 안목을 갖게 해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 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Kelly는 캐나다 다운타운의 경찰로 근무하던 시절, 그의 디자인적 재능을 알아본 한 지인의 권유로 British Columbia Institute of Technology(BCIT)에서 인테리어 디자인 프로그램을 수료하며 새로운 길에 첫 발을 들여놓게 된다. BCIT를 졸업 한 후에는 친구 2명과 작은 디자인 회사를 설립하여 4년간 활동했으며, 현재의 Kelly Reynolds Interiors로 독립하게 되었다.

이에 이번 기사를 통해서도 디자이너가 되기 전에 걸어온 그의 다양한 분야, 이색적인 경험이 어떻게 디자인에 영감을 주었는지 살펴 볼 수 있는 최근 주거공간 프로젝트를 소개하고자 한다.

### >>> Profile

2003~2005 British Columbia Institute of Technology  
-Interior Design Program

2006~2010 Founded Fruition Design Inc.

2010 Founded Kelly Reynolds Interiors



모던하면서도 무게감있게 완성된 원룸 인테리어.



침실 한쪽 벽면에 거친 질감이 느껴지는 갈색 벽돌을 사용하여, 러프한 다락방 컨셉트를 표현하였다.

## Yaletown Loft

Design / Kelly Reynolds(+1 604 563 2070)

Location / Yaletown District, Vancouver BC, Canada

Area / 92.9m<sup>2</sup>

Photography / Chad Falkenberg

아날로그적인 감성과 디지털 감성이 적절히 조화된 Yaletown Loft는 클라이언트의 감성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원룸이다. 다듬어지지 않은 것이 때로는 더 멋스러운 분위기를 내듯이 1980년대의 러프한 다락방을 컨셉트로, 집안 곳곳이 디자이너만의 영감을 통해 재탄생되었다. 이에 디자이너는 거친 질감이 느껴지는 마감재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어두운 계열의 가구를 선택하여 중후하면서도 옛스러운 감성을 불러일으킨다. 공간은 크게 확장된 싱글베드룸과 셰프의 주방으로 나뉘는데, 특히 주방에서는 한쪽 벽면에 갈색 벽돌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천장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통해 아늑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또한 다듬어지지 않은 자연적 요소들은 석영 카운터와 월넛 캐비닛, 반짝이는 크롬, 모자이크 타일과 어우러져 자연스러우면서도 화려한 느낌을 자아낸다.



아날로그적인 감성과 디지털 감성이 적절히 조화된 Yaletown Loft의 거실.

싱글베드룸에서는 한쪽 벽면에 사용한 갈색 벽돌이 자칫 지저분해보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심플한 디자인의 가구와 조명을 선택했고, 베드룸에서 화장실로 이어지는 복도의 벽과 바닥을 그레이톤으로 마감하여 차분한 인상이 들도록 했다. 반면 화장실의 녹슨 육중한 철제문은 공간에 반전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여, 호기심을 자극한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다들 어지지 않은 아날로그적인 느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에 상반되는 디지털적인 기능을 강조한 부분도 있다. 디자이너는 TV를 볼 수 있는 욕조와 개인 스파 시설, 바이오 연료를 사용한 벽난로와 주방의 맥주 보관통까지 세심하게 디자인하여, 거주자의 편리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한 배려까지 잊지 않았다.



주방에서는 한 쪽 벽면에 갈색 벽돌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천장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통해 이층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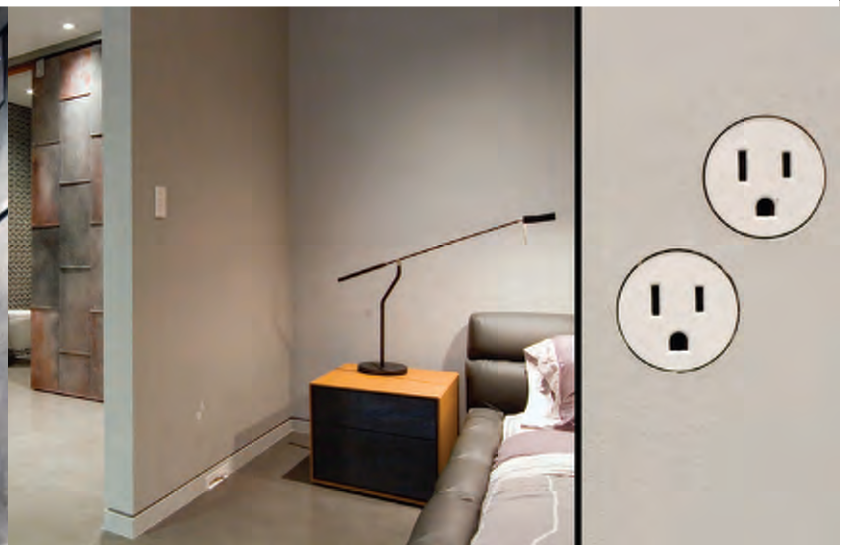
벽에 나뭇가지 모양을 음각으로 표현, 개성 넘치는 공간으로 디자인하였다.



강렬한 3차원의 패턴이 인상적이다.



녹슨 육중한 철제문은 공간에 반전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여, 호기심을 자극한다.



▲ 싱글베드룸은 최대한 심플한 디자인의 가구와 조명을 선택하여, 군더더기 없는 인테리어를 추구했다.





화이트 배경에 오렌지 계열 의자와 장식 오브제를 두어 식욕을 자극하는 다이닝 공간.

## Howe St.

Design / Kelly Reynolds, Chad Falkenberg(+1 604 563 2070)

Location / Yaletown District, Vancouver BC, Canada

Area / 80 m<sup>2</sup>

Photography / Chad Falkenberg

Howe St. 프로젝트는 작은 공간이지만 넓어 보일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무엇보다도 주방의 크기를 가장 크게 계획하여 편의성을 재고하였고, 이와 더불어 음식을 먹는 다이닝 공간도 6명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영역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다이닝 공간은 전체적으로 화이트 배경에 오렌지 계열 의자와 장식 오브제를 두어 식욕을 자극하며, 화이트 찬장은 매립형 손잡이를 채택하여 벽과 하나가 되는 듯한 깔끔한 인상으로 마무리했다.

또한 침실 내부의 화장실은 샤워부스를 설치하여 협소한 공간을 실용적으로 사용하였고, 화이트의 욕실자재와 블루 계열의 세면대 벽면이 시원한 공간감을 느끼게 한다. 뿐만 아니라 파우더룸은 여성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이라는 특성에 걸맞게 맞춤 생산된 컬러풀한 모자이크 타일을 적용, 다른 공간보다 더욱 산뜻한 분위기를 내려고 했다.

마지막으로 거실과 복도는 연한 오크마루를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었으며, 이와 더불어 자칫 단조로워 보일 수 있는 무광의 화이트 벽은 감각적인 그림들과 함께 연출하여 공간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



자칫 단조로워 보일 수 있는 무광의 화이트 벽을 감각적인 그림들과 함께 연출하여 공간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화이트의 욕실자재와 블루 계열의 세면대 벽면이 시원한 공간감을 느끼게 한다.

다이닝 공간의 뒤편에 슬라이드 문을 사용하고, 그 안쪽에 개인공간을 숨겨놓았다.